

글 쓰기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문제 1. (70점)

예술은 사회·정치·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 A.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원고지 6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 B.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원고지 4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문제 2. (30점)

Freedom of speech is fundamental to political dissent, diverse cultural expression, creativity, and innov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one's personality through self-expression.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enables dialogue, builds understanding, and increases public knowledge. When we can freely exchange ideas and information, our knowledge improves, which benefits our communities and societies.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lifeblood of democracy.

Whil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fundamental, it is not absolute. This means it can be limit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 A. Summarize the main theme of this article.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원고지 100자 이내 한글로 작성할 것)
- B. Discuss some of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for civil discourse.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원고지 300자 이내 한글로 작성할 것)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구성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	--------	--

다음 주어진 3개의 이미지들을 각각 해석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이미지1



이미지2 (*상표는 고려사항이 아님)



이미지3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 주어진 3개의 이미지들을 본인은 어떻게 읽어내었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문제 2] 1번에서 답한 각각의 해석을 모두 주요 설정으로 삼아 완결된 이야기로 구성하시오. (1200자 이
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조건 1 : 등장인물의 이름은 반드시 A, B, C 등 알파벳으로 표기할 것.

조건 2 : 시제는 현재진행형으로 할 것.

K 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영화과 특별전형(외국어성적우수자)

이야기 구성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다음 주어진 3개의 이미지들을 각각 해석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문제 1> 주어진 3개의 이미지들을 본인은 어떻게 읽어내었는지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문제 2> 1번에서 답한 각각의 해석을 모두 주요 설정으로 삼아 이야기를 구성하시오.
(1200자 이내로 작성할 것. 띄어쓰기 및 마침표 포함)

- 조건1) 등장인물의 이름은 반드시 A,B,C.....등 알파벳으로 표기할 것.
- 조건2) 시제는 현재진행형으로 할 것.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모집

영상원 영화과 특별전형 <영상예술특기자> 1차 시험

심층면접 1

주 제 > 주어진 영상 텍스트를 보고 질문에 답하기

과 제 > '주어진 영상물1과 영상물2를 전체 스토리에 처음과 끝에 배치하여 중간 스토리를 채워 로그라인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기'

조건 1) 영상물 1과 영상물 2중에 어느 것이든 처음과 끝이 될 수 있음.

조건 2) 오전에 주어진 영상물 관람 후 오후 개별 심층면접 시 답하여야 함.

조건 3) 위 과제 외에도 해당 영상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면접관들의 질문에 답하여야 함.

(심층면접 시, 영상 관람 전후 본인이 작성한 메모를 참고할 수 있음)

* 로그라인이란?

(영화) 이야기의 방향을 설명하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된 줄거리.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 공 실 기 1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춘향전》과 《홍길동전》의 두 내용을 자유롭게 섞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조건>

1. 작품의 형식은 자유이며 5쪽 이상 표현하시오.
2. 작품과 별도로 반드시 1쪽은 새로운 이야기의 줄거리와 기획 의도를 글로 작성하시오.
3. 본인의 이름, 출신학교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표기 시 불합격 처리함.

<평가기준>

스토리 구성, 출제 의도와의 적합성, 조형성 그리고 글쓰기를 중심으로 평가함.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문제>

아래 문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뒷장에는 본인이 구상한 기획의도를 글로 쓰시오.(500자 이상)

K 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예술사과정 신입생 모집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특별전형

실 기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문제>

공교육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뒷장에는 기획의도와 본인이 구상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전체 500자 내외)

K 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실기 1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다음 글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의 일부입니다. 글이 묘사하는 장면을 주어진 사운드를 반영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시오.

11월 어느 음산한 밤, 나는 마침내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나는 거의 고뇌에 이를 정도의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던 생명의 도구들을 끌어모았다. 이제 그것들로 내 발 앞에 놓인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새벽 한 시였다. 빗줄기가 음산하게 창문을 두드렸고 초는 거의 타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반쯤 사그라진 촛불의 희미한 빛을 통해, 그 피조물이 흐리멍텅한 노란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 놈은 거칠게 숨을 쉬었고, 발작을 일으키며 사지를 꿈틀댔다.

이 참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토록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다해 만든 그놈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놈의 사지는 적당히 균형이 맞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뿐 아니라 놈을 아름다운 용모로 만들려 했다. 아름답게! 아, 맙소사! 놈의 누런 피부 아래 움직이는 근육과 동맥들이 거의 다 드러나 보였다. 검은 머리칼은 윤기를 내며 흘러내렸고 이빨은 진주 빛깔처럼 희었다. 하지만 이처럼 다채로워 보이는 모습은 희끄무레한 눈구멍에 자리 잡은 그 눈구멍과 거의 비슷한 빛깔의 축축한 눈과 주글주글한 피부, 그리고 불거진 새까만 입술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섬뜩하기만 했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글 쓰기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	--------	--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 승리하자, 승전국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는 패전국 이집트의 왕 프삼메니토스에게 모욕을 주고자 했다. 그래서 패전국의 왕을 길거리에 세워두고, 그의 딸이 노예 옷을 입고 다른 자녀들과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 가는 모습을 보게 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든 이집트 아비들이 소녀들의 모습을 보며 울고불고 했으나 정작 왕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알아차리고 묵묵히 땅만 내려다 볼 뿐이었다. 곧이어 아들을 목에 밧줄을 매게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 맨 선두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왕은 역시 딸을 보았을 때와 같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포로 행렬 속을 걸어가는 거지나 다름없는 늙고 초라한 한 남자가 자기의 오랜 친구임을 알아본 순간, 왕은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극도의 슬픔을 보였다.

문) 위 글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발췌한 인용구의 요약이다. 제시한 글을 읽고 패전국 왕이 친구를 통해 느꼈던 슬픔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해석한 바를 논리적으로 쓰시오. (단, 허구적 이야기 구성이 아니어야 하며, 띄어쓰기를 포함 400자 이내로 쓰시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 공 실 기

수험번호		성 명		감독관 확인	
------	--	-----	--	--------	--

문)다음은 4칸의 연속된 이미지이다. 사운드를 듣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성하여 비어있는 3번 그림을 완성하시오.

이미지 1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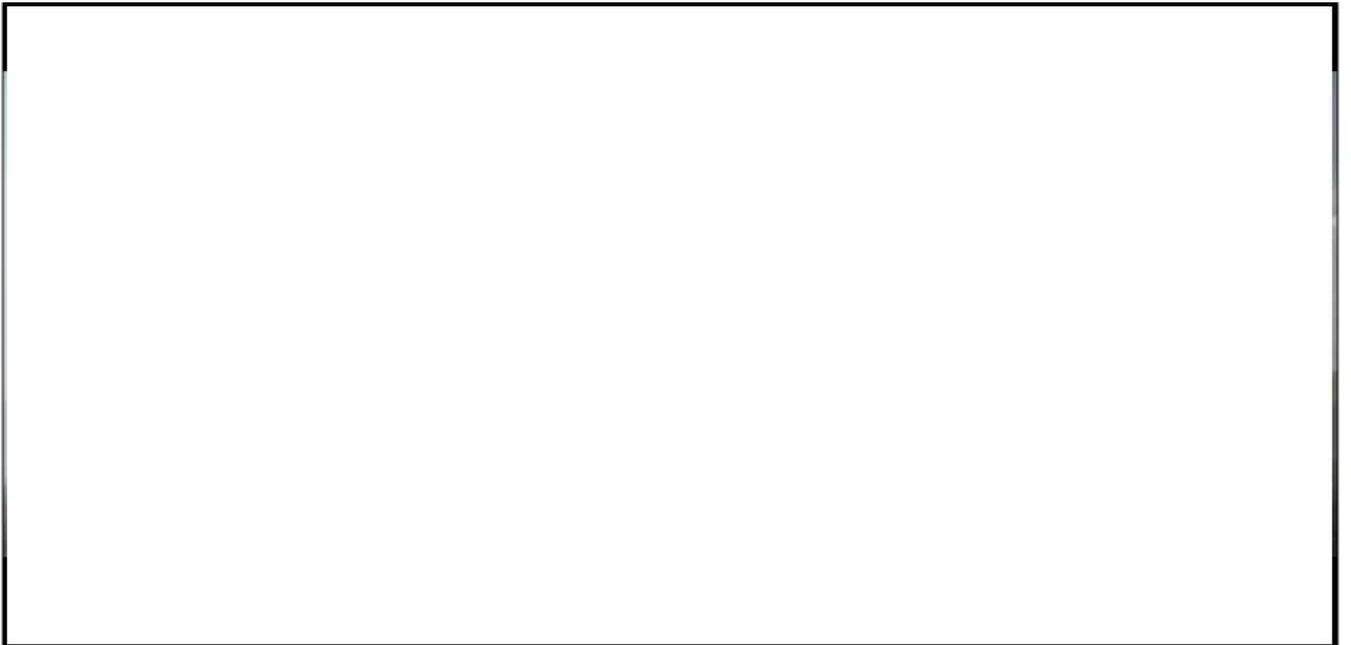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2



K ARTS

이미지 3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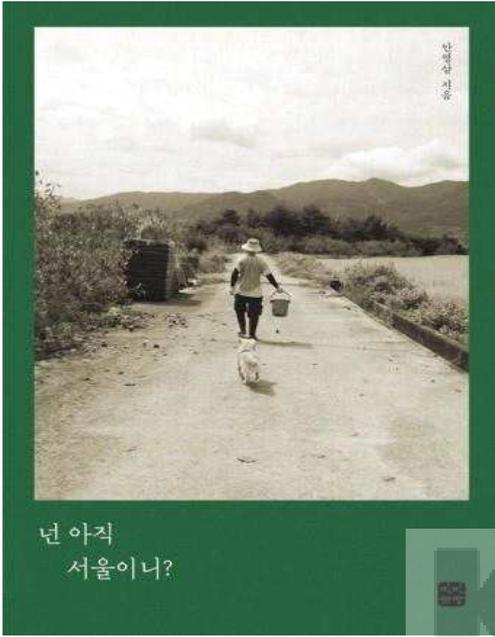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1. 위의 책(<년 아직 서울이니?> 안영삼 작가)은 어느 무모한 귀농자의 에세이집이다. 그는 스스로 ‘게으른 농부’라 자칭하며 ‘자연농법’, ‘태평농법’, ‘방치농법’ 등을 강변한다. 화학비료도 제초제도 기계농법도 모두 반대한다. 그의 삶은 환경운동가의 그것과 닮아있는 듯하다. 당연하게도 그의 농사는 불품없는(?) 농작물을 키워내는 데 그친다. 끝없는 소동과 좌절이 그의 귀농일기에 기록된다. 그 시작은 이렇다.

2011년 구례로 왔다. 고향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 자가용에 옷가지와 이불, 책 등 몇 가지만 가지고 무작정 내려왔다. 허름한 집을 하나 얻어 지리산의 한 자락 구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왜 하필 구례로 오셨어요?”

이곳에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다.

“구례는요. 천년 동안 한 명도 크게 출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먹을 게 많고 경치 좋고 행복하니 굳이 한양까지 과거 보러 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아, 네!” 머리를 끄덕이며 더는 질문하지 않는다. “경치가 좋아서요.”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잖아요!”와 같은 예상 가능한 대답이 아닌 데다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대답이 나오니 당황하는 것이다. 수도 없이 듣는 질문에 의미 없이 장황한 대화가 계속되지 않게 하는 데는 꽤나 효과가 있는 대답이다. 그리고 실제로 구례를 귀농지로 정한 것은 이 이유가 제일 크기도 했다.

“왜 도시를 떠나왔어요?”라는 질문은 좀처럼 듣기 힘들었다. 몇 년 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구례로 온 사람들은 대충 세 부류였다. 첫째는 사업이 망했거나, 둘째는 이혼했거나, 셋째는 사업이 망하고 이혼했기 때문이었다. “왜 시골로 오셨어요?”라고 물어봐야 대답은 뻔했다. 삶이 망가졌으니까, 사는 것에 지쳤으니까, 미래가 사라졌으니까!

천성이 게으른 난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24시간을 쪼개서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도시는 번잡한 토끼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굴이었고 난 거북이처럼 항상 눈치를 보고 있었다. 단 며칠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초조하고 쫓기는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환경이 감당하기 힘들었다. 다들 힘세고 사냥 잘하는 호랑이, 사자 같은 곳에서 느려 터진 거북이인 나는 어울리지 않았다. 편안하고 여유 있고, 좀 더 바라자면 모두 다 느려 터진 근본적 스트레스 없는 곳이 필요했다. 자연스럽게 귀농을 결심했다. 아니,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구레쓰레기’라 불리면서 아주 가난하지만 해맑은 미소를 품은 채 당당한 농사꾼의 삶을 살고 있다. ‘게으름은 실패와 좌절을 부르는 악덕’이라는 우리의 상식으로 바라보면, 그는 도시에서 밀려난 낙오자이고 불안으로부터 도피한 삼류인생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마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위에 대한 승산 없는 레지스탕스 활동처럼 여기고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는 불안에 대한 무모한, 그러나 너무나도 소중한 도전이라 판단하는 것 같다. 당신은 어떠한가? ‘게으름’을 조금은 옹호할 수 있는가? 당신이 목격한, 게으르지만 사랑스러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보시오. 그리고 왜 그 사람의 게으름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오. (25점)

2. 트린 T. 민하(Trinh T. Minh-ha)는 베트남 출신의 영화감독이자 영상 작가이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실제 인물과 재연 배우의 기용을 통해 다큐멘터리 인터뷰 재현 방식을 문제시하는 <그녀 이름은 베트남 Surname Viet Given Name Nam>(1989)이 있다. 다음은 트린 T. 민하의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I don’t think of my films in terms of categories - documentary, fiction, film art, educational or experimental - but rather as fluid, interacting movements. The first is to let the world come to us through an outside-in movement - this is what some call ‘documentary’. The other is to reach out to the world from the inside out, which is what some call ‘fiction’. But these categories always overlap. I wrote ‘there is no such thing as documentary’ because it’s illusory to take the real and reality for granted and to think that a neutral language exists, even though we often strive for such neutrality in our scholarly work. To use an image is to enter fiction.”

- 1) 위 내용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겨보시오.
- 2) 트린 T. 민하의 의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25점)

3. 최근 12.12 군사 반란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당시 실제 일어났던 일에 감독의 허구적 상상력을 곁들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로 인해 잊혀져 가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다시 환기시켰다는 의견과 함께 사실에 허구를 더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영화 ‘트루먼 쇼’는 바로 이 ‘진실’과 ‘왜곡’ 혹은 ‘사실’과 ‘거짓’이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다.

누군가의 삶이 전세계에 생중계된다는 이 영화의 설정은 너무나 유명하다. 태어나서 30년 동안 부모, 친구, 이웃, 심지어 아내 역할로 고용된 배우들과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트루먼(짐 캐리)은 우연한 몇몇 사건을 겪으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나의 삶이 진정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순간들이 영화적으로는 코미디지만 그에게는 끔찍한 공포였을 것이다. 극중 <트루먼 쇼>의 연출자 크리스토프(에드 해리스)는 트루먼이 가상의 일상(Virtual Reality)을 유지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지만 그럴수록 현실의 균열은 더욱 분명해진다. 트루먼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세계의 끝에 다다랐을 때의 전율은 잊을 수가 없다.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세계의 끝은 뱃머리가 세트의 벽에 콕 박히는 ‘바스락’ 소리에 무너지고 만다. 영화 속 트루먼의 세계에서는 생중계를 위해 달에서도 보일 만큼의 거대한 세트장을 구축하고, 수많은 연기자도 동원한다. 그런데 2020년 현재, 우리 모두가 내 삶을 생중계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내 일상이 실제 내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 누가 연출자이고 누가 배우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강력한 가상 세계(Seahaven)가 구축됐다. 수많은 뉴스와 감정들이 여과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채 서로의 삶에 침투한다. 이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보다, 즉 객관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적인 외부 사실을 파악하는 것보다 내 삶에 즉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주관적인 감정과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현실'이란 무엇일까. '현실'이라고 믿도록 연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씨네21 김종민 프로그래머의 <트루먼 쇼> 중 일부

우리는 트루먼쇼로 되돌아 간다. 이 영화엔 크게 네 주체가 존재한다. 하나는 거짓이 진실인 줄 알고 사는 주인공, 두 번째는 허구인 줄 알면서도 연출자의 지시를 받아 진짜처럼 연기하는 트루먼 쇼 내부의 배우들, 세 번째로는 허구인 트루먼쇼를 만들고 연출하는 연출자와 제작진, 마지막으로 이 쇼를 보는 시청자들이다. 이 네 주체 중 누가 '진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때의 '진실'이란 어떤 의미인가? (25점)

4. 역사는 드라마에 필요한 무대이고 배경이다.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다. 당대의 혹은 과거의 크고 작은 역사들이 드라마로서 다시 보여지고 이야기될 수 있다. 이제 당신에게 한국 현대사 속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바탕으로 드라마를 기획해 보라는 미션이 주어진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펼쳐 보여줄 것인가? 어떤 사건을 왜, 어떠한 방식 혹은 형식으로 구상할 것인지 타이틀과 함께 적어보시오. (25점)

K ART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인	
------	--	----	--	--------	--

문제 1. <섬이 없는 지도>(2022)를 보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총 40점)

(질문 1) 이 영화를 설명, 분석하시오. (10점)

(질문 2) 난민, 환경, 생태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 있어 영화가 어떠한 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 또한 그러한 장치들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생산하는지 기술하시오. (20점)

(질문 3) 유사한 영화나 문학 작품 등을 예를 들고 비교 분석하시오. (10점)

문제 2. 아래의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Intercultural cinema by definition operates at the intersections of two or more cultural regimes of knowledge. These films and videos must deal with the issue of where meaningful knowledge is located, in the awareness that it is between cultures and so can never be fully verified in the terms of one regime or the other. Yet the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s are also mediated by power, so that the dominant regime (...) sets the terms of what counts as knowledge. Other knowledges cannot be expressed in its terms. They may evade expression because of censorship; because memory is inaccessible; or because to give expression to those memories is to invite madness. They may become subsumed to the dominant regime and forced to speak its language: this is the tokenism of multicultural cinema. In the face of these erasures, intercultural cinema turns to a variety of sources to come up with new conditions of knowledge: written history, sometimes; the audiovisual archive; collective and personal memory; fiction; and the very lack of images or memories, itself a meaningful record of what can be expressed. Cultural knowledges are lost, found, and created anew in the temporal movement of history and in the spatial movement between places.

Intercultural cinema moves backward and forward in time, inventing histories and memories in order to posit an alternative to the overwhelming erasures, silences, and lies of official histories. There are many examples of film/videomakers who have begun by confronting the lack of histories of their own communities that result from public and personal amnesia. These artists must first dismantle the official record of their communities, and then search for ways to reconstitute their history, often through fiction, myth, or ritual.

As in many intercultural films and videos, the acts of excavation performed by these works is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primarily deconstructive, for it is necessary to dismantle the colonial histories that frame minority stories before those stories can be told in their own terms. Yet once this deconstruction has been accomplished, no simple truth is uncovered. There is a moment of suspension that occurs in these works after the official discourse has been (if only momentarily) dismantled and before the emerging discourse finds its voice. This is a moment of silence, an act of mourning for the terrible fact that the histories that are lost are lost for good. Yet this moment is also enormously suggestive and productive. It is where these works begin to call upon other forms of cultural knowledge: it is where the knowledges embedded in fetish-like objects, bodily memory, and the memory of the senses (...) are found.

This theory of an archaeology of the image helps show how intercultural cinema expresses the disjunction between orders of knowledge, such as official history and private memory, by juxtaposing different orders of image, or image and sound tracks that do not correspond to each other. Intercultural cinema reveals new history as it is being formed, the new combination of words and things that cannot be read in terms of the existing languages of sound and image but calls for new, as yet unformulated languages. To read/hear the image, then, is to look/listen not for what's there but for the gaps (...) to look for what might be in the face of what is not. Hence the importance of absent images (often, video black or black leader), barely legible images, and indistinguishable sound in so many of these works.

- * regime 체제
- * amnesia 망각, 기억상실
- * excavation 발굴, 굴착
- * mourning 애도
- * disjunction 괴리



(질문 1) 위의 지문에 근거하여 intercultural cinema의 주요 특성을 설명하시오. (15점)

(질문 2) 자신이 본 영화 중에서 위의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intercultural cinema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고, intercultural cinema의 특성들이 해당 영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15점)

문제 3. 다음 지문들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지문 1]

환경주의와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연구에서 데이비드 인그램은 **환경주의 영화(environmentalist film)**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경주의 영화란 환경적 쟁점들을 내러티브(서사) 중심에 설정하지만 여기서 환경은 헐리우드가 처분할 수 있는 단지 또 다른 “주제상”의 쟁점에 불과한 영화를 말한다. 인그램의 주장에 따르면 “환경주의 영화는 인간 존재와 환경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일련의 모순적 담론들을 끌어들이고 영속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집대성”이라는 것이다.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친환경(pro-environment)’ 혹은 ‘친보존(pro-conservation)’ 혹은 ‘친지속가능성(pro-sustainability)’ 관점을 제공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 영화들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문화의 기본적인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윤리에 도전하기보다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다. 인그램이 지적하듯이 “헐리우드의 환경주의 영화들은 황야건 야생동물이건 비인간(non-human)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인간 관계(human relationship)에 대한 성찰의 기초로 활용한다. 그럼으로써 이 영화들은 이러한 관심이 인간중심적 이야기, 즉 인간의 이해관계에 입각한 이야기에 대한 헐리우드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부응할 수 있게끔 한다.” (중략)

예를 들어, 스티븐 소더버그의 <에린 브로코비치>(2000)는 언론과 관객 모두에게 환경적 행동주의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 환영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환경 정의 쟁점을 둘러싸고 구조화되어 있고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하고 브로코비치라는 실존 인물에 기반한 여주인공이 관객에게 행동주의의 모델로 기능한다. 하지만 영화의 끝 무렵 내러티브의 핵심으로 남아 있어야 할 흙, 물, 인간 생명의 오염은 주요 인물의 개인적 용기와 영웅주의에 밀려 그리고 그러한 영웅주의로 얻게 된 물질적 보상에 밀려 배경으로 남게 된다. (중략)

스콧 맥도날드(Scott MacDonald)는 생태학적으로 정향된 아방가르드 영화와 실험영화에 대한 연구에서 **생태영화(ecocinema)**를 “자연 세계에 몰입되는(immersed) 경험을 환기시키거나 ‘자연’을 보존하는 환영을 창조할 수 있는” 유형의 영화라고 정의한다. 맥도날드에 의하면 아방가르드 영화 일반이 갖고 있는 능이자 생태영화 일반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기능 중 하나는 “관습적인 미디어-관람성(media-spectatorship)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지각(perception)을 재훈련시키는(retraining) 것”이다. 실험 생태영화 혹은 아방가르드 생태영화는 [. . .] 우리로 하여금 재현과 다르게 관계 맺도록 촉구함으로써 우리가 영화와 자연 세계와 관련 맺는 대안적 양식들의 조건을 창출하도록 도울 수 있다. (중략)

[생태영화로 주목할만한 예시로는] 안드레이 즈드라비치(Andrej Zdravic)의 <리버 글래스(Riverglass)>(1997)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41분 길이의 서정적 비디오로 슬로베니아의 소카 강의 수정처럼 맑은 에메랄드 물 속에 관객을 시각적으로 몰입시킨다. <리버 글래스>는 행동주의적이지도 논쟁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은 영화이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쟁점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하지만 이 영화가 관객에게 하는 요청들은] 정치적 행동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청들은 우리의 지각과 자연에 대한 자각(awareness)를 변형시킬 것에 대한 요청들이기 때문이다. (중략) <리버 글래스>는 우리의 지각 습관과 우리의 보는 방식에 도전함으로써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자연 세계가 재현과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놓는다.

(폴라 윌로켓-매리콘디 편, 『세계를 프레임하기: 생태비평과 영화에서의 탐구들』, 2010)

[지문 2]

21세기의 시작 이래로 환경 인문학(environmental humanities)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부상했다. 이 간학제적 노력은 세계의 각지에서 동시에 전개되었다. 이 분야는 개인들의 수십년 간의 연구를 통해 그리고 환경 쟁점에 관심있는 학계의 연합체의 형성 이후에 자의식적인 국제적인 정체성과 명칭을 획득하게 되었다. (중략)

이 분야의 부상에 기여한 학제들에서 제안된 몇 가지 중심적인 사상은 환경 인문학을 예상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환경에 흥미를 갖는 몇몇 철학자들은 “사물 자체(thing in itself)” (임마누엘 칸트의 ‘물 자체’[das Ding an sich])에 대한 관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거부했다. 칸트는 감각들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썼지만 환경 철학은 단절되고 고립된 ‘사물’ 혹은 대상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오히려 모든 대상과 존재는 관계에 따라 정의된다. 즉 그것은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자신의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중략)

인간은 자연 세계로부터 독립해 있지 않으며 그것의 일부이다. 19세기와 20세기 내내 상식으로 간주되어 온 자연/문화 이분법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원론이 자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 문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서의 변형 및 발췌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입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착상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인간 존재는 동물이며 유한한 것이다. (중략)

인간 존재는 다른 종들에 비해 특별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우리는 동물과 식물을 인간에 대한 유용성의 견지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이 존재할 내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생명 형태 전체가 사라지면 그러한 상실은 인간 문화도 축소시키게 된다. 톰 반 두렌(Thom van Dooren)이 쓰고 있듯이 “우리는 인간 예외주의(human exceptionalism)의 중핵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세계의 나머지와 분리시켜 이러한 절멸의 시기에 일어난 엄청난 상실에 감응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되는 여러 종들의 죽음에 애도할 수 없도록 하는 한 말이다.”

(로버트 에미트, 데이비드 나이, 『환경 인문학: 비판적 입문』, 2017)

(질문 1) [지문 1]은 환경주의 영화(envIRONMENTAL film)와 생태영화(ecocinema)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유형의 영화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를 [지문 2]에서 제시된 환경인문학적 관점에 비추어 비교 분석하시오. (15점)

(질문 2) 자연환경을 다루는 영상작품 한 편을 예시로 들고 그 작품의 내러티브(서사)와 스타일(미장센, 촬영, 편집, 음향 등)을 [지문 1]과 [지문 2]에서 제시된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주의: [지문 1]에서 논의하는 작품 외의 영화 가운데서 한 편을 선택하시오) (15점)

K ARTS